

5·31 지방선거 현장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국가 프로젝트’ 공감대 형성돼야”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위원 세미나서 주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행사가 아니라 세계화와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 연구위원은 “여수박람회가 광주·전남이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색성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서·남권을 중국 상해권을 겨냥한 문화관광 및 신산업으로 메카로 육성하려는 국부(國富)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관심을 끌어올릴 대책을 제시했다.

적으로 높은 한반도 서남권과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공동으로 유치하고 또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권을 ‘엔진’으로, 그리고 동부권(광양만권)과 서남권(목포권)을 ‘양날개’로 하는 상생발전전략을 수립, 동부권의 세계박람회와 경제자유구역, 광주권의 문화중심도시와 혁신도시, 서남권의 J프로젝트와 S 프로젝트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권역의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시킨 ‘제휴·협력 기반’을 남해안으로 과급시켜, 한반도의 서·남해안권을 ‘동북아 문화관광 및 신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수박람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져 박람회 유치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가 수립중인 2012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에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반도 서·남해안권을 동북아 문화관광 및 신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반영하고 추진함으로써 인접 지역민은 물론 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 유치 타당성 설득 관건”

주불 한국대사관 윤상린 1등서기관



있게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유치 실패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02년엔 박람회 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우리 사고 중심적이어서 BIE나 회원국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개발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도 상당부분 갖춰지고 있다고 본다. -유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유치신청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무리다. 다만, 2010년 유치실패 당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보완되는 등 준비가 상대적으로 구체화·내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외교력이 중요한 변수다. 외교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에 대한 접촉이나 BIE와의 협상이 단일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여수 유치를 위한 명분 확보가 우선이다. -박람회를 북한과 공동개최하는 방안이 대한 생각은.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전략 및 공감대 확산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전남도와 여수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태 ‘빛나는 연대’ 광주본부 출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전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PARFUS)’가 21일 오후 3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광주시본부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광주시본부 창립은 제주와 대전·충남에 이어 세번째.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충북본부가 창립되는 등 올해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창립대회에서는 광주시본부장에 유동국 전 전남매일 회장, 동구지부장 임강석 전남간호대학원 이사장, 서구지부장 조기선 변호사, 남구지부장 김재택 화순현대

병원 이사장, 북구지부장 천세영 국제라이온스클럽 회장, 광산구지부장은 신일섭 호남대 교수를 각각 위촉하기로 했다. 이어 강 대표의 특별강연과 결식학생 돕기 및 개안수술지원 기금 전달이 있게 된다.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2004년 9월경부터 강 전 의원이 전국 각 대학 등을 순회강연하며 ‘선진화된 매력 한국만들기’를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파퍼스 포럼’이 확대 개편된 조직, 5천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봉사의 일상화, 국가정책과 비전 제시, 인재양성 등 3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최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0% 여론조사 경선 수용”

○...김재균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시장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후보자간 합의 ▲광주 필승전진대회일인 오는 30일 이전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때 참관인 참석 ▲조사 샘플 2천명 이상 ▲조사기관 3개 가운데 1개는 지방업체 ▲여론조사 전 과정 녹취 등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활민원을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민노 시장, 공동선대본부 발대

○...민노당 광주시당은 20일 오후 7시 5·18 민주홀에서 36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공동선대본은 이날 발대식에서 “10만 지지자 획득, 20명 공직자 당선으로 지방정치를 관할이하자”며 “지방선거를 승리, 빈곤과 차별없는 광주를 건설하자”고 선언했다.

민주 공천탈락자 반발 계속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한 탈락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창근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공천위가 일방적으로 전남지사 후보를 선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뜻을 같이 하는 후보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 공천의 불법 사례들을 수집, 5월 15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원 직접경선 공천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나주 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인 이민준 전남도의원도 이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위가 표결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범석후보 ‘광양공청회’ 참석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는 19일 광양지역 시장과 농협, 장애인협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광양시청에서 열린 ‘광양미래도시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함께 광양항 개발 등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에 앞서 18일 순천시 연향동 GS빌딩 7층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했다.

與 광양시장후보 28일 선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은 광양시장 후보를 오는 28일 오후 3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기로 하고 서종식 변호사, 김현우 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홍보위원장, 양동만 전 개혁국민당 광양지구당위원장(기호순)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전남도당은 19일 열린 제6차 공천심사위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남도의원 공천자로 ▲완도 제1선거구 서정창(51) 전남도의원 ▲화순2선거구 윤여남(62) 호남대 직원 ▲고흥1선거구 윤민수(43) 별정우체국장 ▲구례2선거구 고택윤(49)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각각 확정했다.

한나라 도당 27일 필승대회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은 도당 및 시·군 일선 조직을 중심으로 오는 24일 ‘5·3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7일에는 보성에서 ‘광주·전남 필승경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남지사 후보인 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역인 동부권 공약을 위해 박근태 당 대표를 모시고 출마 후보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 ‘하이스코’ 비대위 구성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20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크레인 재검거와 연행, 사법처리 방침에 반발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순천시시장 후보인 이수근 순천시위원회위원장을 선임했다. 전남도당은 현대하이스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릴레이 단식 등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민과 함께...’ 호피 코너 신설

○...이형석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20일 후보 홈페이지(www.hs21.pe.kr)에 ‘주민과 함께 하는 e제안실-내가 만드는 우리 북구’ 코너를 신설, 주민들로부터 공약과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선거법 논란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코너는 주민들이 시정했으면 하는 구정 방향과 불편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생

Advertisement for '전국은 바다와 섬에 꼭 빠졌다!' (The whole country is definitely in the sea and islands). It features images of people swimming and surfing, and lists various seafood products like '3월의 바다' (Sea of March) and '호랑이손바닥' (Tiger's palm). The text promotes fresh seafood and local products.

Advertisement for '오네프빌' (Onepebil) real estate proje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apartment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the project's location and amenities. The text includes '오네프빌' and '225+0070'.